

“中 시장 ‘그림의 떡’”… 韓게임사, 유럽 등 신대륙 눈 돌린다

中 정부 규제강화에 시장 진출 난항
신규시장 발굴로 분위기 반전 모색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북미·유럽·오세아니아 지역 서비스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아마존게임즈와 남미·호주 서비스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게임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게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게임사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게임사들이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게임 셧다운 제’,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금지’ 삼중고에 빠져있다. 규제가 점차 심해지자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게임시장을 눈앞에 놓고도 포기하고 있다.

◆ 사드보복 벗어나지 못한 게임사들

국내 게임업계가 중국 진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한국 게임의 중국 판권 등록이 막혀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16년 7월에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벌어진 중국 정부의 한국 대중문화 금지 조치는 당시 게임업계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 지식재산권(IP) 판권



카카오게임즈는 오는 12월 아키에이지의 북미, 유럽 및 오세아니아 지역 퍼블리싱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서비스 지역을 남미와 호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 있다.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경영체제를 개편하고 글로벌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2월에는 ‘아키에이지’의 북미, 유럽 및 오세아니아 지역 퍼블리싱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일게이트도 자사의 대표 게임 ‘로스트아크’의 서비스 지역을 남미와 호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글로벌 게임 공급 플랫폼인 아마존 게임즈와 손잡고 남미와 호주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초로 예정된 북미와 유럽 지역 정식 서비스 일정과 동일하게 남미와 호주에서의 서비스를 시작하고 남미 서버도 추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규 국가들을 위해 웹사이트와 상점 등에서 언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2016년 이후로 중국 시장은 사실상 막혀 있다”며 “기존에 진출한 게임이 아니면 신규 서비스 등록은 아직까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북미, 유럽 등 신규시장을 더 개척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등록이 막히면서 신규 게임의 중국 진출이 한동안 막혀 있었다. 작년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가 판권을 받기 전까지 무려 3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게임 중 중국의 판권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판권 허가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라는 점이다. 2016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국내 게임 판권이 허가된 경우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드 보복으로 특히 중소 게임사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거리상으로도, 인건비상으로도 진출이 가장 쉬웠던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중소사들은 수익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 ‘게임 셧다운제·메타버스 금지’에 무

너진 차이나드림

중국 정부의 게임사업 자체에 대한 규제도 심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예방에 관한 고시’를 공개하고 청소년들이 공휴일이 있는 주를 제외하면 일주일간 3시간의 게임밖에 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이러한 중국판 게임 셧다운제는 당분간 해결되기 힘들어 보인다. 중국 당국이 게임을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 경제참고보는 지난 8월 온라인 게임을 두고 ‘정신적 아편’, ‘전자 마약’이라고 비판했다. 아편전쟁 역사를 가진 중국이 마약에 대해 갖는 반감을 생각하면 최악의 표현을 통해 게임을 비판한 것이다.

최근 게임사들이 눈독을 들이며 개발에 나서는 메타버스도 국가 안보를 예로 들며 비판받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기술 개발 패턴을 볼 때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의 정치적 사상과 사회, 문화가 중국의 정치·문화적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메타버스는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장차 국제 정치계의 잠재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해외시장 공략 나서는 국내 게임사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신규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

“中 기업 여전히 매력적… 주식 포기하긴 일러”

차이나 뉴스&리포트

글로벌 자산운용사 中 시장 긍정적 전망
제임스 앤더슨 “규제리스크 정점 지나”

중국 증시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아마존과 테슬라, 모더나 등의 초기 투자자로 이름을 날린 곳이다. 중국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를 뛰어넘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베일리 기포드의 제임스 앤더슨 파트너는 “중국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중국)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앤더슨은 212억 파운드 규모의 스코티시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공

동 운용자다. 이 펀드는 아마존과 테슬라, 모더나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하다. 중국에서는 음식배달 앱 메이퇀과 틱톡의 바이트댄스,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에 투자했다.

스코티시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투자종목 상위 10개 가운데 3개가 중국 기업이다. 텐센트와 메이퇀, 전기자동차 니오의 비중이 각각 4.1%, 2.9%, 2.8%다.

중국 정부는 올해 7월 사교육 금지령을 포함해 빅테크 기업과 부동산, 게임 산업 등에 대해 규제 강화에 나섰고, 해당 기업들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베일리 기포드는 온라인 교육업체인 탈에듀케이션의 주요 주주 중 한 곳이었다.

베일리 기포드 역시 손실이 불가피했고, 일각에서는 베일리 기포드가 중국

의 성장 스토리에 집착한 나머지 정치적 리스크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앤더슨은 “중국 공산당의 목표 등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든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 등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예상했어야 했다”면서도 “중국 정세의 변화 속도는 때로 자본시장을 두렵게 하지만 규제 리스크의 정점은 지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앤더슨은 “투자자로서 중국 기업들의 상황은 매력적”이라며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보다 더 큰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트댄스는 전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며 “중국의 차세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활력의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분할상환대출 받으라더니” 실수요자, 부담 가중 ‘분통’

거주자들 “사실상 월세살이”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대출’ 유도하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 TF’를 열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고객이 분할상환을 이용할 경우 한도 확대나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분할상환을 정착시켜 가계부채 감소와 일시상환 부담을 덜자는 취지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배로 늘어났다.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 80%까지 대출해주고 전세 계약 종료일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전세로 사는 동안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과 저축을 병행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년간 원금의 5% 이상만 분할상환하면 해당 전세대출 잔액을 분할상환대출로 인정하고 분할상환 비중이 높은 은행에 정책도 기지 상품을 우선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5% 분할상환은 거치식 전세대출보다 다달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전세대출 6억원을 빌려 2년간 3000만원(5%)을 갚으면 5억7000만원에 대해 은행의 분할상환대출 실적으로 잡아주지만 2년간 원금으로 매달 125만1000원을 갚아야 한다. 또한 매달 3% 정도의 이자까지 더해지면 2년간 매



분할상환으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달 약 300만원의 돈이 나가게 된다. 거주자들은 전세로 살고 있지만 매달 3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니 월세 살이랑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환한 5%(3000만원)는 전세계약 종료시 돌려주긴 하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가치 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상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의무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고, 내년 1월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이뤄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만기가 2년 수준으로 짧아 원금 상환까지 요구하면 실수요자 부담감이 너무 높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연스러운 가계대출 수요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전자, 美 시장 폴더블폰 대중화 선도

삼성전자가 미국에서도 ‘폴더블’ 대중화에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주간 판매량 보고서를 통해 출시 후 2달 후를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 중 폴더블폰 비중이 12%로 뛰어올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폴더블 폰 비중이 1%도 안됐음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세다. 갤럭시 Z 플립3와 Z폴드3가



갤럭시 Z 폴드3와 Z플립 3

전략으로 보면) 지금까지 성과를 봤을 때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